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17615 Old Baltimore Rd. Olney, MD 20832



Donut King 그 시절 그 맛, 도넛 3727 University Blvd. Kensington, MD (301)949-3464	K Auto Service 김태은베드로 13310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301)384-5046	성당 신용조합 @워싱턴한인천주교회 예금보유한도 \$250,000 저렴한 자동차 용자 (New & Used) 개인 신용대출과 저금 (301)774-8191	소아치과 Olney Pediatric Dentistry Jenny Rhee, DDS OlneyPediatricDentistry.com Olney, MD (301)329-3309	SALADMASTER 80년 전통의 세계 최고의 조리도구 Change your cookware Free cooking class (410)245-1151
AG 에어컨&히팅 가정용 수리/설치 Rebates&Financing Available BGE, Pepco, Potomac Edison, Washington Gas (301)208-0800	정문기&정선화보험 메디케어, 오바마 & 그룹 건강보험 생명, 연금, 교육보험, 롱텀케어플랜 (703)598-3316 (703)862-5395	JCA Primary Care 이백철 내과 아침 일찍 여는 병원 12401 Middlebrook Rd. Germantown, MD 진료시간 6:30AM-4:00PM (240) 203-8820	김창용 발병원 Kim Podiatry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하루 Rockville, MD O (240)206-6274	
리아꽃집 이은정리아 장례식, 결혼식, 각종 외환 www.leasflowershop.com W (301)635-9660 C (301)537-6625	Carom 한국 당구장 3쿠션/4구 당구대 앤들리(VA) 롯데 마트 옆 13939 Metrotech DR. (703)987-9227	Greenway Lending (subsidiary of Insta Mortgage, Inc.) Danny Kim/Regional VP NMLS #29351 Email : Danny.Kim@GWMendis.com C (301)509-9999	고소희 꽃 집 결혼식, 장례식, 꽃 전문 2230 George C Marshall Dr. (301)384-5299 (240)426-0100	베스트 간판 BEST SIGN USA.com 각종 간판주문 제작 설치 및 수리 (301)490-6252 (703)887-1515
맹일민 메디케어 Part A & B 신청 무료 Part C & D, MediGap (240)381-2646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바마 케어 (571)263-1033 박수미 미카엘라	모커리 척추 병원 엘리트 시티 전문 마사지사 치료를 돕습니다. 문지윤 (410)480-0083	Sung Hwang & Kim LLP 성 황 & 김 합동법률사무소 MD VA DC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클레어 양 사무장 (443)832-3312 (410)772-2324	
Royal Western 김성일 페레올로 크레딧 카드 서비스 (703)400-7100	백운기(아오스딩)치과 Rockville Office AugustinePaikDental.com (301)231-5858	KOHO KOREAN HOUSE 손영석 도미니코 최상의 BBQ/ Arundel Mills 예약 (443)812-4221	State Farm 엘리스 권(사비나) 에이전트 차보험, 집보험, 자동차 론 생명보험, 은퇴계획 (410)461-3277	유스티노 한 Euro Motor Cars Bethesda, MD C (703)855-8710 O (301)215-5491
샘 김 부동산 Four Star Group 김샘 사무엘 (301)466-9073	편한나라 척추신경 민혁기 바실리오 교통사고, 어깨, 목, 허리통증, 등 락빌 (301)279-6960 엘리트시티(410)480-2331 센터빌 (703)830-4422	최근봉 & 고유라 척추 신경 Choi & Koh Chiropractic 교통사고, 목, 머리 통증병원 5946 Hubbard Dr. (301)984-7700	목.어깨.허리통증.구안외사 신성복바로로 한의사 교통사고환영 각종 보험 문의 환영 예약 (301)500-5919 (714)469-3232 (24시간)	미 뷰티 메드 스파 한국인 NP 보톡스, 마이크로 니들링 락빌 (301)500-0214 (문자 가능)
공인 회계사 김영만 마태오 연방세무사 세금보고, 회계장부 정리 (301)717-7666	공인 회계사 사무엘 김 (301)641-7237 (301)309-0313	김익재 내과 김익재 프란치스코 Rockville Office (301)230-9893	델타 오토바디 강민규 마르코 확장이전 12267 Nebel St. (301)792-0750	광고 신청 \$10/per week
척추사랑 이형운 마르코 교통사고/척추신경/ 손발 전문 통증병원 락빌 (301)231-7588 센터빌 (703)429-4622	김연환베드로부동산 Maryland Pro Realty 메릴랜드 전문 부동산 회사 O (301)340-6100 C (301)466-7733	일등 부동산 뉴스타 강민규 마르코 모든 부동산 문의하세요 (301)792-0750	HYUNDAI 현대 클라크스빌/ Antwerpen Clarksville 12440 Auto Dr, Clarksville Tony Sohn(410)855-5336	
카디오케어 심장내과 Chevy Chase/ Rockville/ Germantown office info@cardiocarellc.com (301)656-5050	PORSCHE 포르쉐 실버스프링/PORSCHE SILVER SPRING 3131 Automobile Blvd., Silver Spring 이경복 보나파티오 O (240)293-9278 / C (240)481-2471	필립 장의사(Philip) Rinaldi Funeral Service 본당 신자들을 위한 특별 할인 요금 제공 O (301)585-4050 F (301)585-4052	마당 레스토랑 최용아 프란치스코 즉발 보쌈 감자탕 12300 Wilkins Ave (301)881-8880	

제2637호 / 가해

주님 공현 대축일

[2026. 01. 04]

입 당 송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제 2 독서 예페 3,2.3ㄴ.5-6

제 1 독서 이사 60,1-6

복음화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화 답 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알렐루야



복 음 마태 2,1-12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성 가 입당 487 봉헌 234 / 217
성체 180 / 198 파견 100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다음 주 성경말씀 제1독서 이사 42,1-4.6-7
제2독서 사도 10,34-38
복 음 마태 3,13-17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 하나이다. 악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시이다. ◎

“ 빈 상자만 든 동방박사, 채울 상자만 찾는 나 ”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마태오복음 2장11절)는 구절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무엇을 아기 예수님께 바칠까?’ 생각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주님께 봉헌할 것을 찾는 듯 보이지만, 잠시 멈추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사실 내가 이 구절에 이끌린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의 ‘보물 상자’에 욕심이 갔기 때문입니다. 평소 마음이 온통 ‘보물 상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에, 비슷한 것만 봐도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언제나 나의 상자에 더 좋은 보물을 모아 넣고 싶은 마음에, 다른 상자를 보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그들은 빈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곳엔 보물만 남고 나의 관심 대상이었던 ‘보물 상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계속 그 상자를 쫓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상자 안의 보물보다 그것을 담았던 ‘보물 상자’ 자체에 더 관심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나는 엉큼한 생각으로 그들의 보물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들었을까?’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상자 안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모두 꺼내 예수님께 예물로 바칩니다. 내 것은 아니지만 상자가 비워지는 것이 왠지 아쉽습니다. 남의 것이라도 ‘보물 상자는 꼭 차야 맛인데!’라는 속물적인 생각에서입니다. 제

그러다가는 동방의 박사들도 나처럼 보물보다는 상자가 더 중요해서 빈 상자만 들고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보물이 세상 최고의 보물이신 아기 예수님 옆에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나처럼 보물보다 상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빈 상자만 들고 갔다고 고집부리고 싶은’ 이유는, 아직도 상자를 비울 생각보다는 채울 생각만으로 가득 찬 나의 엉큼한 마음 때문입니다.

박문성 마태오 사제

† 미사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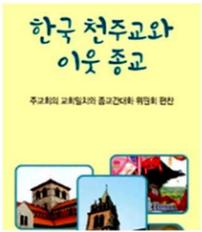
토요일 18:00 청년
주일 08:00
09:45 영어
11:00 교중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영어고해성사 매주일 영어미사 후
유아세례 매월 셋째주(토) 오후 2시/ 영어가능
병자성사 병자 영성체 위독하기 전 연락
혼인 성사 6개월 전 신청(혼인교리 필수)
장례 예식 연령회장님 | 사무실 문의

○ 주임신부 박문성 마태오
○ 부 주 임 최철원 스테파노
○ 사목회장 정효성 디모테오
mickie0416@gmail.com
○ 연령회장 조명철 베드로
(240)354-5502
○ 사무실 (301)260-1981
www.standrewkim.org
sakoffice@gmail.com

24. 시험이나 큰일을 앞두고 점이나 타로를 보면 안 됩니까?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마태 6,9-10).



우리나라 무속 전통의 점(占) 혹은 점복(占卜)은 신령의 뜻이나 미래의 일을 무당의 주술이나 의식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오늘날에는 전통적 점술 외에 '타로'와 같은 서양 점술도 성행합니다. 타로는 특별한 그림이 그려진 78장의 카드를 사용하여 현재의 고민에 대한심리적 조언이나 통찰을 돕는 '마음의 거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신비주의자들과 오컬티스트(occultist)들이 15세기부터 이탈리아 북부에서 게임용으로 사용되던 카드를 점술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현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심리적 위안을 얻고 '편한 삶'을 유지하고자 다양한 점술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점 미신 행위로 우리가 참 하느님께 드려야 할 예배에서 벗어나니. 점이나 타로 등이 시험이나 큰일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솔깃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느님의 선하신 계획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확실한 미래를 점술에 의존하여 통제하려 하기보다, 하느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신뢰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일이 자신

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청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불안을 잠재우는 심리적 위안을 넘어,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신앙 고백입니다. 참된 신앙은 결과에 상관없이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확신에 바탕을 둡니다. 일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는 마치 하느님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 아라비안나이트의 요술 램프 정도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하느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설령 그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바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방식으로 최선의 목적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신뢰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화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보다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며 하느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고백하듯,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이나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 점이나 타로 대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느님의 뜻에 순명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한국 천주교와 이웃 종교』48~49쪽 참조)

박문성 마태오 사제

봉헌금 (12월 23일 - 12월 28일)

교무금	11615	감사헌금	
주일 봉헌금	5002	익명 100 이용재 100 이두성 1000	
점심봉사 반석방	948	꽃봉헌	민영자 40
성모회 성전보수	1595	주보광고	김영만 마태오 520 셸러드마스터 130 김익재 520
불우이웃 익명	100	달력광고	리아꽃집 300
달력관세	40		
합계	22010		

교무금 (12월 23일 - 12월 28)

권구영 11.12	송제술 1	정재현 1-12
김대인 1.2	안창호 1-12	정정해 9
김덕만 10-12	안호건 12	정혜경 1-12
김영만 9-12	원종군 11.12	최병국 1
김재민 12	유미영 8-12	행화 12
김중수 7-12	이경태 1-12	현영남 12
민영자 12	이성찬 1-12	황희열 1-12
배현오 5.6	이재광 7-12	
서정명 1.2	이진우 1	

미사지향 (1월 4일)

생	박문성 마태오사제	정창훈 이나시오가정	이준희 알퐁소가정
	최철연 스테파노사제	정재현 바오로가정	이덕근 프란치스코
연	조재혁 미카엘	김재진 스테파노가정	유만연 아델라
	윤세진 미카엘라	김기준 아오스팅가정	정갑진 스테파노
	이수동 시몬/이안나	박기형 유스티노가정	손도미나 수녀님
	박철근 바오로	정태권 유스티노가정	이아네스 수녀님
	장우영 안토니오	이영상프란치스코가정	성가정 수녀님들
	김은옥 말가리다	김만호 니콜라오가정	위트구역 식구들
	이현주 마리아	송신녀 모니카가정	박승신 데오도로
	김진숙 베로니카	김정흠 스테파노가정	이종목 로베르토
	33일봉헌자들을 위해	정순도 클라라가정	
	정현찬프란치스코가정	정진수 말세리나가정	
연	교황 프란치스코	이연화 엘리사벳	최수철 이나시오
	강홍건 요셉	이훈복 야고보	손정희 세실리아
	김광자 요안나	정정옥 마리아	곽홍중 요셉
	고요셉	정종면 요셉	강호영 다니엘
	김규완 로베르토	라정예 도미질라	김미숙 마리아
	김대우 요한	조규혁 마태오	김경준요한비안네
	김홍범 요한	최종선 요한	
	김병서 안드레아	최수경 올리안나	
	손경준 시몬	김수진 레지나	
	손재봉 필레몬	박명례 수산나	
	양경호 세례자요한	송상훈 바오로	
	이경옥 헬레나	나화유 린다	
	이장순 세레나	홍숙향 루시아	

공지 사항

■ 26세 성인 신자의 자리: 참여와 나눔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26세 이상의 성인 신자께서는 **교적상 독립 세대주**가 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 본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인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26세를 성인이 되어 독립하는 기준으로 삼으며, 이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공동체 일원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교적상 독립 세대주**는 단순한 행정상의 구분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책임과 참여를 실천하는 성숙한 구성원**이 됨을 뜻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교무금을 책정**해 주시면, 작은 나눔과 참여가 우리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하고, 신앙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길이** 됩니다.

■ 교무금 | 주일헌금 봉헌안내

2026년 올 해 정성된 마음으로 교무금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 약정서와 교무금 카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봉헌하신 모든 봉헌금은 텍스 보고용 봉헌금 영수증으로 매년 1월 말에 발송됩니다. 교무금을 봉헌하실 때는 **반드시 세대주 성함과 세례명**을 기입 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납부 방법:

- Check | 현금 봉헌 : 세대주 성함과 세례명/ 몇월분/ 전화 번호를 꼭 기재 바람
- ACH Deposit : 은행에서 매월 자동으로 납부하는 방법
- Credit Card : 매월 자동 납부 또는 전화로도 가능함
- 미사 중 주일헌금 봉헌시 봉투를 이용하는 방법
- Zelle 납부 : sakoffice@gmail.com

■ 사목평의회 월례회

- 일시 : 1월 7일(수) 오후 7시

■ 2026 사목위원 및 단체장 연수

- 일시 : 1월 18일(주일) 오전 8시30분-오후 4시
- 장소 :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 대상 : 사목위원과 각 그룹 단체장

■ 소공동체 모임

- 소공동체 모임 : 1월 10일(토) 저녁
- 장소 : 각 구역 가정
- 구역모임에 가실 때 개인 성경, 복음묵상 노트, 성가책을 지참 합니다.

■ 미용봉사 안내

*매월 둘째주 주일, 교육관 232호실에서 점심식사 후 12시30부터 2시30분 까지 미용봉사가 있겠습니다.

■ 가톨릭교리신학원 2026년 신입생 모집 안내

- 통신(우편)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 지원자격 : 가톨릭 교회 수도자 및 평신도
- 접수일자 : 11월 10일 ~ 2월20일 2026년까지
- http://ci.catholic.or.kr

2025년 정기 회년을 마치며

「희망은 실망하지 않는다」(Spes Non Confundit, Hope Dose Not Disappoint)는 주제로 2024년 12월 24일 성 베드로 대성당 성문이 열리며 시작된 회년은 2026년 1월 6일 주님 공헌 대축일에 폐막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2025년 12월 20일 회년 마지막 토요일 알현에서

“우리는 여전히 **희망의 순례자**”라고 강조하며, 회년이 끝나더라도 희망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교황은 **“희망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느님의 힘”**이라며, 희망 안에서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간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참된 힘은 지배나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하느님의 능력임을 강조하시며, 신자들에게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땅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황은 창조물의 재화가 모두를 위한 것임을 상기시키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시도록 우리의 삶과 목소리를 내어드리자고 권고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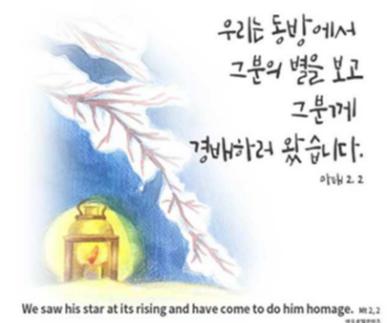
주일 학교

■ 주일학교 겨울 방학(Winter Break)

- 12월 28일-1월 18일까지 주일학교 방학기간에는 12시30분 미사와 교리가 없습니다.

■ 고등부 피정

- 고등부 피정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학부모 이메일 참조)
- 일정: 2월 27일(금) ~ 3월 1일(주일)
- 참가비 결제: 현금 또는 수표만 가능
- 얼리버드 등록: 1월 25일까지 \$100(이후 등록 시 \$30 인상)



☞ 주일 봉사자 안내 ☜			
날 짜	미사안내/봉헌	헌금계수 봉사자	점심봉사
1 / 4	Fulton	서총원 최선희 황성욱	총구역 임원진 설령탕
1/11	Laurel	신미현 김경순 Diana Guon	Frederick

ECANNOUNCEMENTS

- **Confession in English**
·Where: The Main Chapel
·When: Every Sunday at 10:40 am - 11:00 am
- **For those who wish to be BLESSED during Communion**
Before Mass Begins: Sit in the RIGHT side facing the altar
Or during Communion:
Stand in the RIGHT line facing the altar
Only a priest can give a blessing during Communion
- **English Committee (EC) Volunteers Wanted**
Interested in serving on one or more of the EC teams (i.e. Admin, Liturgy, or Retreats)?
Please contact Heidi Song, ECLiturgysAK@gmail.com.
- **We need your singing voice!**
We are looking for a cantor or hymn leader who can lead the congregation during Mass

ANNOUNCEMENTS

- **A Place for Adult Members at 26: Joining Our Community in Participation and Sharing**
Adult members who turn 26 are encouraged to become **independent household members** in our parish records. This marks a step into **responsible participation** and being a **co-owner of our parish's future**. Being an independent household member is more than an administrative change—it reflects a **mature role in our faith community**, taking responsibility and contributing to parish life.
We invite you to set your **Monthly Offering** according to your circumstances. Your participation, **no matter the amount**, helps strengthen our community and **share the joy** of faith.
· For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 **Church Offerings & Sunday Donation Guidelines**
· For the year 2026, we kindly ask for your heartfelt offerings. Offering (Tithe) pledge forms and cards are available at the parish office. All tithes will be issued as tax-deductible donation receipts and sent by the end of January each year.
When offering, please include the head of household's name and baptismal name.
Offering Methods:
· Check/Cash: Provide the head of household's name, baptismal name, month of payment, and phone number.
· ACH Deposit: Automatic monthly payments through your bank.
· Credit Card: Automatic monthly payment or payment via phone.
· During Mass: Use designated envelopes for Sunday donations.
· Zelle Payment : sakoffice@gmail.com

The Conclusion of the 2025 Ordinary Jubilee



The Jubilee, held under the theme “*Hope Does Not Disappoint*” (*Spes Non Confundit*), began on December 24, 2024, with the opening of the Holy Door at St. Peter’s Basilica, and will conclude on January 6, 2026, the Epiphany of the Lord.

Pope Leo XIV emphasized at the final Saturday audience of the Jubilee on December 20, 2025, that “**we are still pilgrims of hope,**” urging the faithful to continue the journey of hope even after the Jubilee comes to an end. He explained that “**hope is not a vague feeling, but the life-giving power of God,**” and that through hope we move toward the light. He also stressed that true strength is not found in domination or fear, but in God’s power that gives life, and called on the faithful to listen to the cries of the poor and of the suffering earth. The Pope reminded everyone that the goods of creation are meant for all, and encouraged believers to offer their lives and voices so that Jesus may be born anew within us.

- **2026 Pastoral Councils and Group Leaders Workshop**
· Date : January 18, 8:30 AM - 4 PM
· Location : 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 Participants : Pastoral Committee members and group leaders
- **Pastoral Council Meeting**
· Date/Time: Wednesday, January 7, 7 PM
- **Parish Small Community Gatherings**
· Gu-Yuk Meeting : January.10 (Sat) Evening
· Where: Gu-Yuk family’s home
· Please bring a bible, reflection notebook, and the Hymn.
- **Hairdressing Service**
· On the second every month, hairdressing services are held from 12:30 to 2:30 after lunch in Room 232. All proceeds will be donated to the Sharing Council.

SUNDAY SCHOOL

- **SS Winter Break(12/28 - 1/18/26)**
There will be no Sunday School classes or 12:30 p.m. Mass during the break.
- **High School Retreat (2/27—3/1)**
Registration is open! Email Reference.
· Date : February. 27 Friday - March. 1 Sunday.
· Payment is accepted in cash or check only
· Early bird registration (\$100) ends on 1/25 and will increase by +\$30

Today's Lunch Menu

1/4	Small Community Leaders	Seolleongtang
-----	-------------------------	---------------



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17615 Old Baltimore Rd
Olney, Maryland 20832



The Epiphany of the Lord

[January 04, 2026]

First Reading	Isaiah 60:1-6	Second Reading	Ephesians 3:2-3a, 5-6
Responsorial Psalm	◎ Lord, every nation on earth will adore you.	Gospel Acclamation	Alleluia, alleluia We saw his star at its rising and have come to do him homage. Alleluia, alleluia
○ O God, with your judgment endow the king, and with your justice, the king’s son; He shall govern your people with justice and your afflicted ones with judgment.		Gospel	Matthew 2:1-12
○ Justice shall flower in his days, and profound peace, till the moon be no more. May he rule from sea to sea, and from the River to the ends of the earth.		Communion Antiphon	We have seen his star in the East, and have come with gifts to adore the Lord.
○ The kings of Tarshish and the Isles shall offer gifts; the kings of Arabia and Seba shall bring tribute. All kings shall pay him homage, all nations shall serve him.		Hymnals	Lectionary: 1110 - The Epiphany of the Lord (A) Opening: 472 - O Come All Ye Faithful Offertory: O Come to the Altar Communion: Here Again Closing: 474 Angels We Have Heard on High
○ For he shall rescue the poor when he cries out, and the afflicted when he has no one to help him. He shall have pity for the lowly and the poor; the lives of the poor he shall save.			

“ Empty Boxes, Full Hearts: The Magi and My Own Desires ”

“Then they opened their treasure chests and offered him gifts of gold, frankincense, and myrrh” (Matthew 2:11). When I read this verse, I naturally find myself wondering, “What gift can I offer to the infant Jesus?” On the surface, it feels like a sincere spiritual question, but when I look deeper, I discover an uncomfortable truth. What really caught my attention was not Jesus, but the Magi’s “treasure chests,” which stirred up my own greed. My mind is often filled with thoughts of worldly “treasures,” so even the mention of a treasure chest quickly pulls my focus in that direction. Always wanting to add more good things to my own box, I can’t help but take interest when I notice someone else’s.

I caught myself looking at the Magi’s treasure chests with a hidden curiosity: “What could be inside?” Then the Magi opened them, took out the gold, frankincense, and myrrh, and offered everything to Jesus. Even though the chests weren’t mine, I felt a strange sense of regret as they were

emptied. It was a very materialistic reaction: “A treasure chest should be full to feel satisfying!” While I was thinking this, the Magi walked away carrying only the now-empty boxes. The treasures stayed with Jesus, and the “treasure chests” that had captured my imagination disappeared from their hands. Yet my mind kept chasing after those empty boxes. At that moment, I realized I was more drawn to the container itself than to the treasure it once held.

Then a ridiculous thought came to me: maybe the Magi also cared more about the boxes than the gifts, and that’s why they took only the empty chests back home. Of course, I know that isn’t true, and I know their gifts gained their deepest meaning simply by being placed before the infant Jesus, the greatest treasure of all. Still, the reason I stubbornly try to imagine that “they also valued the boxes more than the treasures” is because my own heart remains full of the desire to keep filling boxes rather than emptying them before the Lord. Fr. Moonseong Park (Matthew)

Pastor	Fr. Moonseong Park (Matthew)	Mass Schedule	CONFESSIOAL(ENGLISH) After the English Mass Left hand side confessional room
Parochial Vicar	Fr. Chulyeon Choi (Stephen)	SAT	18:00 (YAG)
Visiting Priest	Fr. Mark E. Tucker	SUN	08:00 09:45 (English) 11:00 (For the people)
Pastoral Council Chairperson	Mickie Joung	DAILY	19:30 (Tues/Fri) 09:30 (Wed/Thurs)
			Infant Baptisms 3rd Sat. 2pm A available in English Parish Office 301-260-1981-2 Website www.standrewkim.org Email sakoffice@gmail.com